

미얀마 천연가스의 정치경제학*

박 장 식**

I. 머리글

1962년 군부 쿠데타로 성립한 권위주의체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실행되고 있는 미얀마는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미얀마의 천연자원은 대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이어서 이런 예측은 과장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 미얀마는 세계최빈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군부의 장기적 집권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반군부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자초하게 되어 결국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조치를 받게 되었고, 아세안 국가들의 간접적인 군부에 대한 압력과 더불어 미얀마 군부는 사면초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서구 진영의 영향력 공백기를 틈타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미얀마를 겨냥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군부 체제는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부족 현상으로

* 이 논문은 2007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되었음. 본고의 논점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교수 jspark@pufs.ac.kr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미얀마의 천연가스전 발견은 일시에 위기에 몰린 군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미얀마의 안다만해와 뱅갈만에서 발견되어 생산되고 있는 천연가스는 주변에 대규모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등이 위치해 있어 공급에 따른 수요가 보장되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외화수입이 급등함에 따라 국제적인 정치적 고립 현상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가 되고 있다. 여전히 강경한 제재의 수위를 낮추고 있지 않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부와의 선린 관계를 맺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제관계의 고립은 자연히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미얀마의 민주화 일정에 대한 묵시적 압력을 행사했던 아세안 국가들도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군부의 대외적인 정치적 행보에 한층 큰 탄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암울한 국제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를 맛보았던 미얀마 군부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의 창출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대담한 정치적 행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것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민주적인 지배를 기피하고 강압적인 정치 지배에 대한 비난과 견제로 인하여 일시 움츠렸던 국내 문제의 해결에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군부의 막강한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이 2008년에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나머지 정치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비롯한 국민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군부의 관심도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¹⁾ 게다가

1) 미얀마 국영신문(The New Light of Myanmar)이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2006년부터 유엔 특사 감바리(Ibrahim Gambari)가 아웅산수찌 여사를 면담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추측케 한다.

자원개발의 명목 하에 독립 이후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던 소수종족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와 강제이주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미얀마 국경지대는 이제 거의 미얀마군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최근 양공의 노상가게²⁾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총선거 직전 2010년 초에 독립 이후 최초로 전국 지역을 망라하는 인구조사³⁾를 실시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도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수종족 반군부 무장집단에 대한 군부의 공세가 2009년 말경에 완료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다지 같은 자원의 발견이 초래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정상적인 거버넌스, 민주주의 제도, 법치제도,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갑작스런 자원의 흥재로 인하여 돈이 왕창 쏟아지면, 부패가 창궐하고 정부가 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로 번져 그 좋은 제도들의 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이로 인해 “자원의 저주”(resources curse), 즉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Turnell 2008: 972). 서구사회에서 미얀마의 천연가스를 바라보는 현 시각은 대부분 이와 다름없다(가령 Levesque 2008; Turnell 2008; Wellner 1994). 하지만, 경제개발을 유도할 만한 그 어떠한 정

-
- 2) 양공의 골목에는 어김없이 미얀마어로 “랑베자잉”이라 불리는 노상가게들이 즐비하다. 겨우 영당이란 걸칠 수 있는 작은 의자와 탁자를 갖추어 한 가게가 차지하는 면적은 적지만, 사실 이곳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각종 가십거리나 소문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음식과 차를 판매하는 이곳은 우리의 포장마차와 유사하다. 미얀마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외국인이라 해도 자신이 들은 소문이나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는데 주저하지 않는 한마디로 여론 창구라 해도 좋은 곳이다.
- 3) 미얀마 전국에 대한 인구조사는 영국 식민정부가 1891년에 최초로 실시한 이후 10년 주기로 1941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Andrus 1948: 23). 1941년 조사결과는 일본의 침략으로 일부 자료가 손실된 탓에 대체로 1931년 인구조사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는 1973년과 1983년에 두 차례 있었지만, 소수종족의 반군부 무장조직에 의해 국경지역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치·경제적 배경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얀마가 기본적으로 제도적 결함에 빠질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얀마군부를 둘러싼 제반 정치·경제적 변화는 우선 천연가스의 개발과 생산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 글은 경제발전의 높은 잠재력으로만 평가되어왔던 미얀마 천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만을 살펴보는 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 개발이라는 경제적 행위가 미얀마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 판도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조망해보게 될 것이다. 다양하고 경제성이 높은 천연자원이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식지 않는 한 향후 미얀마의 변화는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매우 이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덧붙여 이 글에서 보여주는 천연가스를 둘러싼 제반 논의도 미얀마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유한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구성은 우선, 전반적인 미얀마 천연자원의 현황과 최근 미얀마 외화수입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개발과 생산에 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보유로 인하여 미얀마 군부를 둘러싼 첨예한 국제관계가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주변국가의 태도 변화에 힘입은 군부가 독립 이후 최대의 정치적 난제로 존재하고 있는 소수종족과의 관계를 비롯한 최근 국내정치에서 과감히 실행하고 있는 정치행위와 자원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소수종족 거주지역인 국경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적인 군사적 공세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얀마 천연자원의 현황

비옥한 경작지를 통한 쌀, 콩, 사탕수수 등 농작물과 가스, 석유, 목재, 보석, 금, 철광, 구리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 및 땡르윈(Thanlwin)강의 수력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는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친 군부의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비합리적인 국유화정책, 투자 재원의 부족 때문에 부존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탄쉐(Than Shwe)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는 국제적인 정치적 열세, 경제적 상황의 악화 및 통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받아들여 외화 수입의 가능성이 큰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1988년에 발생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이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빈곤화에도 기인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식량문제를 둘러싼 농업부문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2년 60%에 가까운 물가급등의 원인도 미곡수출에 따른 식량부족에 있었고 2004년에 미곡수출의 전면 금지를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던 경험에서 여전히 GDP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에 관한 군부의 관심은 지대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곡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였던 미얀마는 낙후된 기술과 부족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경작지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90년대 이후로 쌀뿐만 아니라 상품작물(콩, 사탕수수, 고무)의 재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본재의 투입이 미미하여 그 성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전 국토 676,563 km² 중에서 25%(현재 15.5%만 경작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유향 경작지로 남아있다)가 경작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작물 생산의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EIU 2007: 17). 삼림분야(6770만

ha 중 삼림은 3440만ha, 채벌이 가능한 열대삼림지대는 1300만ha, Levesque 2008)의 원목생산에 있어서도 잠재력과 생산력은 적지 않지만, 무분별한 벌목과 불법채벌이 많아 향후 목재분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얀마 목재의 재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경제성 있는 분야로 거듭날 수 있다. 미얀마목재공사(MTE, Myanma Timber Enterprise)를 통한 2007년 수출액은 5억불이 넘으며 천연가스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Ye and Kyaw 2007). 2832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진 미얀마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닌 뱅갈만과 안다만해(목따마만)를 통한 수산업분야도 매우 유망하다.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광물자원도 매우 다양하며 매장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채광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구리,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가 미얀마의 대표적인 광물이다. 캐나다 Ivanhoe Mines(MICCL)와 합작투자로 몽유와(Monywa)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구리는 미얀마 최대의 광물인데, 이곳에서 2007년 구리의 수출액은 약 1억불에 달한다(Fong-Sam 2007; Ye and Kyaw 2007).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옥, 루비, 사파이어 등 다양한 보석류도 미얀마의 주 수입원이다. 매년 보석판매전을 열고 있는데 세계의 보석상들이 미얀마에 몰려든다. 2006/2007년의 경우 미얀마보석공사(MGE, Myanma Gems Enterprise)가 보석판매로 거둬들인 판매액만도 3억불에 달한다(Human Rights Watch 2007). MGE는 매년 3월 양공에서 세계 주요 보석상을 초청하여 대규모의 보석 경매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만 거의 2억 달러 가량의 보석이 거래된다.

미얀마는 1853년에 석유 생산을 시작했던 것으로 사실 세계에서 오래된 산유국 중의 하나에 속한다. 1962년 군부의 쿠데타로 석유 및 가스 산업이 국유화되었고, 현재에는 정부 부처인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에 속하는 3개의 국영기업에 의해 각각 생산, 정유,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유와 가스의 탐사와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이며, 안다만해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내수 공급을 위한 약 1,9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도 관할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1988년부터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미얀마정부는 내륙(16개)과 해상(25개)의 탐사구역을 설정하여 외국기업과 탐사와 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07년의 시점에서 보면, 16개의 내륙 지역 구획에 총 9개의 외국 석유회사가 진출하여 석유 탐사 또는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Total 2008: 6). 석유의 경우 2006년부터 800만 배럴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낙후된 정유시설로 인하여 국내 소비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EIU 2007: 30).

석유와는 달리 천연가스는 2000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면서 일시에 미얀마에서 수출 부문의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되었다. 뱅갈만(A-1~A-7)과 안다만해(M-1~M-18)의 총 25개 구획에서 한국의 대우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의 외국기업들이 탐사와 시추작업을 하거나 이미 천연가스 생산을 하고 있다(Total 2008; SGM 2007). 2006/2007년 회계 연도의 총 수출액이 80억불을 돌파하였고 무역수지도 약 20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천연가스 수출의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Ye and Win 2007). 대우인터내셔널이 시추작업에 성공한 여카인주(Rakhine State) 해안의 쉘 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되면 미얀마의 수출액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미얀마의 천연가스는 주변에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 대규모의 에너지 소비국이 위치해있어 수출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파이프라인 건설과 유지에 있어서 거주민(대부분 지역이 소수종족의 거주

지역)의 이주를 강요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⁴⁾

미얀마 최초의 대규모 천연가스 생산은 안다만해에서 시작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가스전이 시추에 성공하여 현재 가스는 생산되어 떠닝다이주를 관통하여 태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MOGE가 몰러마잉 근처 마잉거레(Myaingkale)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국내소비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안다만해의 야더나(Yadana) 가스전은 프랑스 Total(운영주관사), 미국 Unocal(현재는 Chevron이 인수하여 참가), 태국 석유개발공사(PTT-EP) 및 MOGE와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약 5.3TCF(Trillion Cubic Feet)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향후 약 30년간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2007년 일일 생산량은 7억6천만CF(2,150만CM)이다(Total 2008). 1998년부터 해상 가스전에서 해저 및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4) 한국의 석유가스 자원개발 전문가에 따르면(인터뷰), 천연가스는 개발 경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매장량이 적어도 1TCF(약 2,832억m³)가 되어야 하며, 고도의 기술력으로 탐사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주변에 거대한 에너지소비 지역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천연가스에 있어 최고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PNG, Pipeline Natural Gas)을 통하여 소비지역에 직접 공급하는 것인데, 미얀마의 안다만해와 뱅갈만의 가스전은 모두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천연가스를 액화(LNG, Liquefied Natural Gas)하여 선박으로 수송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액화 변환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송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다행히 미얀마의 주변국가는 모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들이어서 향후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판매와 관련된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는 한마디로 행운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천연가스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naturalgas.org/index.asp>

<그림 1> 야더나와 예더궁 가스전의 파이프라인



출처: Total(2008: 16)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수정한 것임.

같은 안다만해의 예더궁(Yetagun) 가스전은 미국 Texaco가 초기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미국정부의 미얀마 제재조치로 1997년 사업권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영국 Premier에게 매각하였다. 운영주관사인 Premier와 함께 말레이시아 Petronas Carigali, 태국 PTT-EP, 일본가스공사, 미얀마 MOGE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약 4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가 7월부터 하루 약 2억CF의 가스를 추출하여 역시 야더나 가스전과 마찬가지로 해상 및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⁵⁾ 태국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연장하여 앞의 <그림 1>에서 보듯이 방콕 북부지역의 발전소까지 연결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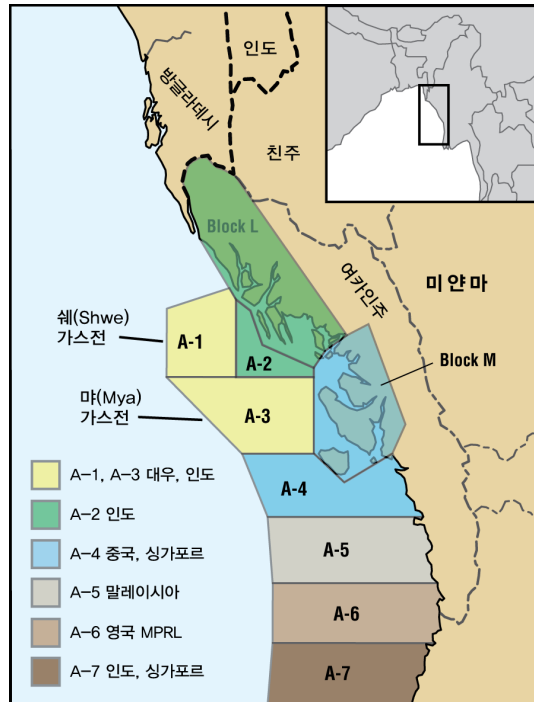
미얀마의 국제관계에 변화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뱅갈만의 여카인주 해안에서 개발된 A-1광구인 쉘(Shwe)와 A-3광구

5) Premier사의 홈페이지 자료. <http://www.premier-oil.com/render.aspx?siteID=1&navIDs=19,312,327,503>, 531

인 마(Myra) 가스전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8월 대우인터내셔널이 MOGE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시추를 시작하여, 지난 2004년 A-1광구(가스전 2개)과 A-3광구(가스전 1개)에서 모두 5.4~9.1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채굴 가능한 가채매장량은 4.5~7.7TCF로 하루 6억CF의 천연가스를 20~25년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대우인터내셔널 2007). 2012년부터 A-1과 A-3 가스전에서 생산될 천연가스는 2005년 12월 중국과 단독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운남성의 곤명(昆明)까지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절대적인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곤명에 처한 인도의 끈질긴 교섭 끝에 인도에 대한 가스판매가 이루어졌다. 또한, 뱅갈만의 가스전은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A-1에서 A-7까지 모두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여카인 해안의 가스전의 구매를 둘러싸고, 극심한 연료부족 국가였던 인도가 얻어낸 성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외는 달리, 2009년부터 극심한 연료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글라데시는 쉘 가스전의 천연가스 공급 성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올해 2월 미얀마로부터 거절의사를 받았다(AFP 2008). 이로써 인도에 공급될 천연가스는 당초 방글라데시를 경유하려는 계획과는 달리 인도의 동북부지역(미조람, 마니뿌르, 아삼, 비하르)을 우회하여 웨스트뱅갈주의 골카따(Kolkata)로 들어갈 예정이다. 뱅갈만의 두 가스전이 본격적으로 인도와 중국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하면 20년 계약으로 40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되고 그 중에서 미얀마 군부가 연간 12억 달러를 거두게 되어(SGM 2009), 안다만해의 기존 두 가스전의 생산까지 합하면 미얀마는 가스 수출만으로도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거두게 된다. 여기에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하여 국경지역의 무역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어서 그 파급효과는 짐중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파이프라인 통과지역의 거주민 특히, 소수종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개발

여과의 어두운 뒷면이 도사리고 있다.

<그림 2> 여카인 해안의 가스전 개발 현황



출처: SGM(2007a). 최근의 후속적인 가스전 계약체결에 의거 수정을 가함.
<http://www.shwe.org/shwe/about-shwe/geopolitics-of-gas>.

Ⅲ. 만다라 유형의 국제관계

미얀마 군부는 지난 1988년 11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경제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승인된 423건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15,726백만 달러에 이른다(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중요한 것은 투자액의 규모가 아니라 투자분야의 분포인데,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미얀마 자원개발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연도와 관계없이 1989년 이후 석유/가스, 전력개발 및 광업 분야는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분야별 외국인투자액(1989년-2009년 1월)

순위	업종	투자(백만)	건수	비율
1	전력개발	6,335	8	40.3
2	석유/가스	3,358	88	21.4
3	제조업	1,629	154	10.3
4	광업	1,396	60	8.9
5	부동산	1,056	19	6.7
6	호텔/관광	1,050	44	6.7
7	축수산업	324	25	2.1
8	운수/통신	313	16	2.0
9	공업단지	193	3	1.2
10	건설업	38	2	0.2
11	농업	34	4	0.2
합계		15,726	423	100

출처: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전력개발 분야가 적은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액이 많은 것은 2005년 태국이 수력발전소 건설에 6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는 거의 석유/가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천연가스의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천연가스의 특성상

주변의 에너지 소비국들은 당연히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2004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05년부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한 증후는 최근 미얀마의 무역구조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표 2>와 <표 3>은 각각 미얀마의 수출과 수입을 기준으로 국가별 점유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천연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한 2000년과 미국의 2차 제재조치 시점인 2003년 및 그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미얀마의 수출 대상국과 연도별 교역량의 비율(%)

	2000/01	2003/04	2004/05	2005/06	2006/07
태국	13.3	33.0	43.2	38.1	45.1
중국	6.4	6.2	9.9	10.3	11.8
인도	9.4	14.9	11.7	13.8	14.0
싱가포르	5.6	3.1	4.8	7.4	3.5
미국	25.9	10.9	0.0	0.0	0.0
일본	6.1	5.1	4.4	3.8	3.2
독일	4.4	3.8	0.0	1.8	1.4
영국	3.8	3.7	1.9	1.7	1.0
기타 국가	25.1	19.3	24.1	23.1	20.0

출처: 工藤(2008: 17) 및 CSO(해당연도)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

<표 3> 미얀마의 수입 대상국과 연도별 교역량의 비율(%)

	2000/01	2003/04	2004/05	2005/06	2006/07
태국	19.8	16.1	9.3	11.9	10.4
중국	19.5	33.3	24.9	23.6	24.9
인도	2.1	3.2	4.2	4.0	5.4
싱가포르	17.1	23.8	30.6	28.1	35.2
한국	11.4	6.7	4.5	4.3	2.9
일본	7.7	4.5	8.1	5.3	5.3
말레이시아	9.1	5.1	5.9	7.0	3.8
인도네시아	2.5	1.7	2.5	2.9	3.2
기타 국가	10.8	5.6	10.0	12.9	8.9

출처: 工藤(2008: 17) 및 CSO(해당연도)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

2004년부터 미얀마 무역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얀마 인접국 중에서 천연가스 개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태국, 중국, 인도가 미얀마의 교역량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2000년부터 생산이 개시된 천연가스로 인하여 미얀마의 수출에 있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인도는 아직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목재와 콩류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특히, 미얀마의 콩류의 수출은 2000년에서 2005년에 걸쳐 7배 이상 늘어났다(工藤 2008: 18). 중국은 미얀마의 수입 부문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은 아직 신장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경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크며 매년 신장세에 있다.⁶⁾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여전히 미얀마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싱가포르를 아세안 국가 중에서 태국 다음으로 미얀마와 밀접한 교역 관계를 지니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제재조치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은 자연히 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한국은 아직 미얀마에서 뚜렷한 무역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자원개발 분야에 꾸준히 진출한다면 미얀마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 인접한 국가이지만, 그동안 여카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의 난민사태와 관련하여 미얀마 군부와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뱅갈만 가스의 공급을 기대했던 방글라데시가 이번 가스 판매협상에서 실패하자 양국은 긴장 상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한, 천연가스 개발권에 관심을 보이는 호주와 그동안 동남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미얀마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5년부터 미

6) 미얀마는 인접한 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공식적으로 13개의 국경교역소를 설치하여 국경무역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교역소를 통한 국경무역은 2008/2009년에만 전체 무역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Htin Kyaw 2009). 그러나 실제로 공인된 교역소 외에도 밀무역이 성행하는 국경 관문은 상당히 존재한다.

얀마 군부에 무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급자이며(Altsean 2006: 38), 핵연구시설 제공⁷⁾과 함께 천연가스와 원유개발 사업에도 진출하였다(Humphries 2007: 7).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자원개발의 이권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러시아의 진출은 일반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미얀마에 있어서는 중국과 인도의 중간에서 완충작용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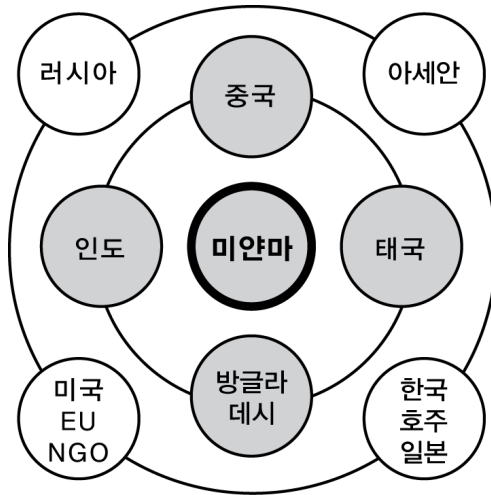
미얀마 군부의 권위주의적 지배와 인권유린에 대한 반발세력으로 국내 민주인사 외에도 미얀마 주변에는 각종 NGO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소수종족의 강제이주와 강제노동, 자연환경 파괴에 대처하는 단체들(Karen Human Rights Group, Salween Watch, Shwe Gas Movement, Thailand Burma Border Consortium 등)이 기존의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단체들과 함께 상당수 생겨났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NGO들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나 미얀마 군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가장 최근에 조직된 이들 NGO의 비난대상으로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3>은 미얀마와 관련된 국가들 간의 관계를 모식화해 본 것인데, 이는 마치 만다라(mandala)⁸⁾의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7) 2002년 미얀마 군부는 평화적 목적으로 핵연구 원자료를 설치할 계획을 언급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10MW 원자료를 포함한 실험실 건설 제공의사를 밝혔고 양국 간에 협정을 통해 원자로 건설은 기정사실화 되었다(Irrawaddy 2007).

8) 만다라(mandala, manda핵심+la부속요소)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축소모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우선, 중심(1)의 주변에 두 개의 동심원(4+4)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중심(1)+외연(8)으로 표현되

<그림 3> 미얀마의 국제관계의 만다라 모형



우선, 미얀마 인접지역이면서 무엇보다 자원분배에 있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국가가 첫 번째 내연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아마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탐사 중인 여카인 해안의 광구에서 다시 가스전이 발견된다면 천연가스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쉘 가스전의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악화된 양국 간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의 국가들은 미얀마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4자간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호 경쟁할 태세를 갖

는 것도 있다. 또한, 티베트를 비롯한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서도 만다라의 모형은 다채롭게 나타난다. 만다라 모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ambiah(1976: 102-111)를 참고할 것. 대체로 인도문명이 전래된 곳에서 5와 9의 숫자를 길조로 여기는 것은 만다라에서 파생된 것이며, 미얀마의 율령에서 요일이 7개가 아니라 8개(수요일은 두 개로 나뉜다)인 것도 만다라의 구조(중심은 제외)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반면 태국은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미얀마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30년 동안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얀마 군부는 이들 첫 번째 그룹의 등거리적인 지지만으로도 체제를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다음 두 번째 외연 그룹은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다소 관망적이다. 이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하여 형식적이거나 동조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동남아 접근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소 영향력이 떨어지는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두 번째의 외연 그룹에 속하게 된다. 다만, 태국을 제외한 기타 아세안 국가들 중에 직접적인 자원배분의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적은 국가들(필리핀, 브루나이 등)이 확실히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제재조치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되자 부족한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의 명목으로 미얀마 군부에 적극적으로 다가설 접근방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은 호주와 함께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 대열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얀마의 국제관계를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인 의미로 파악한다면 3파전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경쟁과 견제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인도(러시아와 방글라데시 포함), 그리고 여전히 미얀마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미국과 EU(일본 및 영향력을 떨어지지만 한국을 포함) 등 이 세 그룹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태국 및 아세안

2000년에 들어서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자 과거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라는 견지 하에서 회원국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지난 30년간에 걸친 원칙을 깨뜨리는 듯 보였다. 2005년 5월에 있었던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국회의원들이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직 아세안 의장국 철회 권고 및 같은 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일정의 이행과 체포구금 중인 정치범들의 석방 촉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오랜 기간 견지해온 회원국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무너뜨린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아마도 서구의 압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Devare 2006: 185), 그 후 미얀마의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잇달아 발견됨으로써 자원 확보와 개발이익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과 미얀마의 중국 편중에 따른 동남아 안보에 미칠 우려로 인하여 미얀마의 현 정치상황에 대한 개입의지는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에 인접해 있는 태국은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아세안의 기초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태국의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아졌으나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천연가스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안다만해의 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태국은 2005년 산주의 땅르원강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에 60억불을 투자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SGM 2008). 이러한 태국의 각종 미얀마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천연가스 공급의 혜택에 따른 자국의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및 향후 미얀마 개발에 있어 파생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기 위한 전략적 진출 의사로 볼 수 있다.⁹⁾ 그래서 한 때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문제로 국경 폐쇄 등 대립관계에 돌입하기도 했던 태국이지만 미얀마의 천연가스 생산 이후 밀월관계에 들어갔다. 태국은 안다만 해에서 개발된 미얀마의 두 개의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사실상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개발계획이나 자원수급 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 미얀마의 경제개발계획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던 싱가포르가 태국의 뒤를 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던 말레이시아가 정부 소유의 석유가스 개발회사인 Petronas를 앞세워 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그동안 관망 상태에 있던 인도네시아가 천연가스 개발투자를 현재 타진하고 있다. 필리핀을 포함한 이들 국가 역시 2004년 이후의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얀마 군부의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아세안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상실되고 있는 것 같다.

9) 태국 전력의 70% 이상은 천연가스에 의해 생산되는데,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30%가 미얀마에서 수입된다. 태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2010년에 피크에 이르고 국내의 수력발전도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미얀마 땅르윈 강의 수력발전소 건설(총 5개의 발전소 건설 계획)은 태국의 장래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결국 군부의 집권을 더욱 정당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태국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Nance 2006).

2. 중국과 인도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는 미얀마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가 양국 사이에 있어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로부터 쉽게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국은 미얀마와의 자원 개발과 군사적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며 미국의 제재조치가 지속되는 한 양국의 미얀마에 대한 밀착관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얀마의 문제를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 같다. 최근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취임 인사차 아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얀마 문제에 관해 “분명히 제재조치를 가할 때 취했던 방법은 버마 군부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나 그 이후 2009년 3월 미 고위급 외교관(국무부 대륙부동남아시아국장)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정부관계자와 반정부 인사를 면담한 것(McDonald 2009)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군사조직을 구축하여 미얀마 정부군에 위협적이었던 미얀마공산당(Communist Party of Burma)과 1980년대에 들어와 지원을 중단하고 미얀마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국제적 궁지에 몰려 있던 군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미얀마 제재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왔고, 군부에 대한 무기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거의 모든 경제개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규모는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광업분야

에 무려 약 8억5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미얀마의 외국인투자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상승하여 태국,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일거 4위로 올라섰다(Deng 2009). 게다가 미얀마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운남 지역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의 교두보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미얀마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의 미얀마 접근은 더욱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운남성의 대미얀마 무역량은 2000년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고 국경무역을 통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Shue 2002: 43).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미얀마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향후 군부와와의 밀착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나친 중국의 미얀마 진출로 인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은 보인다. 이러한 징후는 미얀마 언론이 지난 2004년 10월 18일 당시 수상이며 미얀마정보국 책임자였던 킨농 장군이 갑작스레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는 뉴스 보도(New Light of Myanmar)에서 드러난다. 현 군부 내에서 SPDC 의장인 탄쇄와 부의장인 마웅에(Maung Aye)와 함께 권력을 나누고 있던 킨농 장군은 중국이 미얀마 진출 교두보로 간주되던 인물이며, 제거되기 한 달 전의 북경 방문에서 중국정부로부터 큰 경제원조를 확보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의 부각을 두려워 한 탄쇄의 결단에 의해서 축출하였다는 것이다(Wechsler 2004). 또한, 중국 편중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구매를 러시아로 분산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2001년에 결정한 미그29 12대의 구입 및 조종기술과 로켓 제작기술의 연수 목적으로 미얀마 공군 300명의 러시아 파견 사실도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Shue 2002: 39). 하지만 이런 사실로 인하여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수도 뉴델리에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의 임시정부 설립을 허용하며 지원했던 인도는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성공 이후 이전의 정책을 폐기하고 군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인도 국내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른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과거 서구 지향적이었던 인도의 정치외교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Devare 2006: 28). 아마도 그 정책의 첫 시험무대는 동남아일 것이며 구체적으로 미얀마와의 유대강화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국경지역 반군집단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 고위장성들의 협의를 시작으로 인도의 미얀마 진출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인도의 대통령 및 수상 등 최고위급 인사들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4년 10월 미얀마 군부의 최고실력자인 탄쉐(Than Shwe)의 인도 공식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정상궤도에 이르렀다. 더욱이 뱅갈만의 가스전이 대우인터내셔널에 의해 개발되자 천연가스 공급을 염두에 두고 그 지분의 일부를 확보하기도 했다.¹⁰⁾ 2007년 양국 간의 교역은 이미 1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2003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더불어 미얀마의 수출에 있어서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의 미얀마 진출이 중국에는 인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식량 및 연료 공급이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에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만성적인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경제발전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인도로서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는 사

10) 여카인 해안의 쉐 가스전의 지분은 최종적으로 대우인터내셔널(운영주관사) 51%, 한국가스공사 8.5%, 인도 ONGC 17.5%, 인도 GAIL 8.5%로 확정되었다(Shwe Gas Movement 2009).

실은 말할 나위 없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도의 미얀마 접근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인도 북동지역의 7개 주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곳의 반정부 군사집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측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Egretreau 2008: 939-941). 현재 인도로 공급될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 지역을 통과할 예정으로 이번 기회에 인도는 미얀마와의 협력을 통해 북동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로서도 지나친 중국과의 밀착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안보 위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독립 이후부터 국제외교에 있어서 중립 견지의 전통을 지녔던 미얀마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볼 때에도 미얀마 군부는 인도의 접근을 환영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과 인도의 경쟁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미얀마에 미치는 아시아의 두 강대국의 영향력에 있어 균형을 잡으려는 술책이 숨어 있는 것 같다.

3. 미국과 EU

미얀마 군사정부의 1990년 선거결과에의 무시와 아웅산수찌 여사의 가택연금 및 인권탄압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 5월 20일 버마¹¹⁾의 자원개발에 대한 미국의 개인 또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미얀마내의 민주화와 인권존중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않는 한 미얀마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었다. 그 당

11) 미국은 1989년 미얀마 군부에 의해 변경된 영어 국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전의 국명인 Burma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웅산수찌 여사의 가택연금 등 민주인사 탄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

시 미국은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에 이어 4번째로 큰 투자국이었고, 야더나 가스전 개발을 위해 Unocal사가 12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제재조치만으로는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이견으로 인해 조치의 결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Erlanger 1997). 물론 이 제재조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투자한 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 내의 들끓는 여론으로 인하여 기존의 미얀마 투자기업들(Texaco, 쉘 시콜라 등)의 철수가 잇따랐고 일부 EU국가들이 부분적으로 이 제재조치에 동참하였다. 미국은 첫 제재조치 이후 5년 뒤인 2003년 8월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미얀마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와 함께 미얀마 군부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미얀마 수출의 25%(주로 의류, 신발 등 제조업 분야의 제품)를 차지하던 미국 시장이 단허버리게 되어, 미얀마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분야는 일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미국과 완전히 동조하는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어서 유럽시장과 거래를 하던 제조업 분야는 비교적 충격이 덜하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투자액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제재조치 이후에 유럽 국가 차원의 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에 있어서 교역 규모는 상당히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다.

2007년 9월 대폭적인 연료비 인상에 대한 반발로 발생했던 반정부 시위를 미얀마 군부가 유혈진압을 강행한 사태 이후 미국 부시 정부는 한층 강화된 제재조치를 10월에 공포하면서 이례적으로 친서방 국가가 아닌 인도와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군사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군사정부에 협력적인 미얀마 민간기업가와 그 기업들이 이번 제재조치에 포함되어 해외지역의 자금이 모

두 동결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Cloud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전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국가들의 미얀마 투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미얀마는 역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제재조치는 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1997년 첫 제재조치가 발효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는 주변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Hadar 1998).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적에 대한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고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버마 군부 지도자들을 움직일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원한다”는 발언을 두고 미국의 미얀마 제재가 곧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나돌자 미국무부는 “제재조치의 해제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정책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했다(AFP 2009).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미얀마 진출에 대해 경계의 시선만은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다. 2007년에 신축된 미국대사관 건물이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하는 상당히 큰 규모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아웅산수찌 여사의 저택에서 가까운 양공의 인야 호수(Inya Lake)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IV. 미얀마의 아킬레스건: 군사정부와 소수종족과의 갈등

천연가스의 생산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미얀마 군사정부는 미얀마의 고착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군부지배에 대한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높은 수위의 질타에 응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지

난 2003년 8월 30일에 지금은 실각한 킨뉵(Khin Nyunt) 수상을 통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단계의 실천, 즉 "민주주의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Democracy)¹²⁾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지금은 넷째 단계를 거쳐 신헌법에 기초한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미얀마 군부는 과거 경험을 통하여 다수종족이 공존하는 미얀마의 정체는 강한 힘을 지닌 군부의 주도 아래 구성되지 않으면 또 다시 1950년대와 같은 내전 상황이 재개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90년에 실시되었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결과를 무시한 채 헌법 기초의원들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군부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의 기초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1992년 군부의 지명에 의해 구성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는 국내외의 거센 반발과 몇 차례에 걸친 회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초안이 완성되었다. 2008년 5월 10일에 사이클론 나기스(Nargis)의 극심한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헌법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92.4%(투표율은 99.07%)로 통과되었다(New Light of Myanmar 5월 16일자 보도). 미얀마 군부는 이미 신헌법의 국민투표 실시와 2010년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이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SPDC Announcement Nos. 1/2008 and 2/2008).

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2007년 미얀마의 국영신문에 게재되었고,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전후로 미얀마 정부의 정보부에

12)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이후 중단된 신헌법 기초를 위한 국민회의를 재개한다. 둘째, 국민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진정한 "규율적(disciplined)" 민주주의 체제 구축에 필요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한다. 셋째, 국민회의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원칙과 세부적인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헌법을 기초한다. 넷째, 기초된 신헌법의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다섯째, 신헌법에 따른 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여섯째, 신헌법에 따라 선출된 의원에 의해 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구성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한다. 일곱째, 의회에 의해 선출된 국가지도자들이 현대적이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의회를 통하여 정부 및 다른 중앙기관을 조직한다(Khin Maung Win 2004).

서 헌법 전문을 담은 책자가 출판되어(물론 발행부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헌법¹³⁾에서는 우선, 미얀마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국군총사령관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의 추천과 승인을 얻어 지명하게 되지만, 이 회의의 총 11명의 위원 중에서 군부의 지명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6명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군총사령관 지명권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양원제 의회의 의석 중에서 25%는 군부의 추천에 의해 채워지고, 국방부, 내무부 및 국경부의 장관직은 국군총사령관이 지명하며, 비상사태가 발동되면 국가원수의 지위는 국군총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PWH 2008). 또한,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미얀마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고, 부모, 형제, 자녀 및 그 배우자들까지도 외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순수한 미얀마 국적자여야 한다는 사실에서 아웅산수찌 여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최근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개발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주변국가의 적극적인 구애공세로 뜻하지 않은 호기를 맞이한 미얀마 군부는 외부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기 전에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켜 군부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사실상 미얀마 군부가 당초 내세운 로드맵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한, 그런 독단적인 정치행위를 저지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군부와 대치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면 아마도 독립 초기부터 정부군과 대치해왔던 소수종족의 반군부 무장 집단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 직후부터 미얀마정부에 대해

13) 2008년 미얀마 헌법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에 관해서는 Ghai(n.a.)와 Taylor(2009) 및 BLC(2008)를 참조하고, 2008년 헌법 전문(영어)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networkmyanmar.org/images/constitution%20200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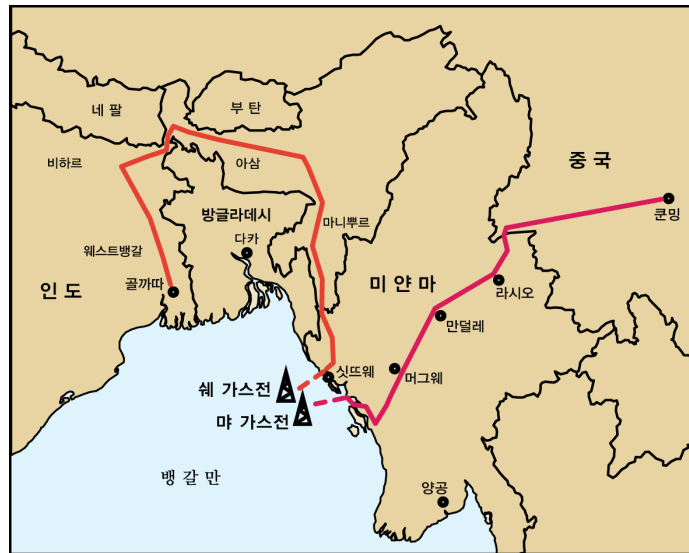
까렌족의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봉기에 나서 한 때 미얀마의 수도 양공 외곽지대까지 진출했던 까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은 군사조직인 까렌해방군(KNLA,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을 조직하여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하여 가장 오랜 기간 저항했던 소수종족무장집단 중의 하나였다. 꼬틀레(Kawthoolei, 까렌어로 백합의 땅이라는 의미)라는 국명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까렌족 해방전선을 주도했던 KNU는 1994년 미얀마 정부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받고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했던 그들의 본거지 마네빨로(Manerplaw)가 함락됨으로써 서서히 그 세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거주했던 엄청난 수의 까렌족들이 미얀마 정부군의 공격에 삶의 터전을 잃고 태국 국경을 넘어 난민캠프에 수용되어 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미얀마-태국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 정식으로 수용되어 있는 미얀마 난민의 수는 약 14만 명이 넘는다(TBBC 2007b).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 군사정부는 평화협정¹⁴⁾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종족 반군집단에 대하여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였고, 미얀마 동부지역 특히 태국과의 국경접경지대는 거의 미얀마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까렌족을 비롯한 소수종족의 난민 또는 이주민의 발생은 단지 과거와 같은 종족분쟁에 따른 내전의 이유로만 야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미얀마 내부의 강제이주(internal displacement)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사회적 충돌 요인으로 인한 강제이주(state-society conflict-induced displacement)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국가의 개발 명목의 활동에 따른 물리적 행사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outh 2007: 8). 이는 주로 미얀마 군부의 국경지역 개발

14)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주로 실각한 킨농 장군의 주도 하에 소수종족 반정부 군사 집단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2개의 반군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장집단이 이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무장해제를 해제한 상태가 아니며 군사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IDP 2009: 3).

계획과 관련된 태국과 접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 2000년 이후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땅르윈강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로 소수종족들에게 강제이주가 집중되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강제이주감시센터(IDPMC,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까지 미얀마 동부지역에서 최소 451,000명이 강제이주를 당하였다고 한다(IDP 2009: 9). 땅르윈강 유역 산주의 따상(Tasang) 수력발전소 건설예정지 주변지대에서는 약 35,000명이 일시에 강제로 이주 당하였고, 태국이 참가하고 있는 까렌주의 훗찌(Hutkyi)댐 건설예정지역에서 태국인 조사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규모의 정부군이 파견되어 주변마을을 강제로 이주시킨 경우도 있다(TBBC 2007a: 20-21).

<그림 4> 뱅갈만 가스전의 파이프라인 건설예상도



출처: SGM의 홈페이지 자료를 간략하게 수정한 것.
<http://www.shwe.org/about-shwe/maps>

이와 유사한 사례는 떠닝다이주에서 야더나와 예더궁 가스전의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 지역에서도 발생한 일이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운영할 여카인주 해안 쉘 가스전과 마 가스전에서도 향후 파이프라인이 각각 인도와 중국으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현재 미얀마 동부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이주의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은 여카인주의 이슬람교도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로힝자족(Rohingya)의 거주지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군의 공세로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난민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여카인주 해안의 가스전 개발 사업이 개시되면서 여러 NGO가 이 지역의 인권유린과 강제이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곳 가스전의 운영주관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국제적 비난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여카인주의 방글라데시 접경지역에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인 로힝자족은 지난 1960년대부터 군부의 학대를 받아왔고, 미얀마국적법이 발효된 1982년부터 이들 종족은 불법이민자로 규정되어 본격적으로 축출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미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조각배로 탈출을 시도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보트피플로 발견되기도 하였고, 태국 해군의 상륙 거부로 국제문제로 부상되고 있다(Beech 2009). 여기에 여카인 해안의 가스전에서 인도 공급용 가스 파이프라인이 여카인주를 관통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로힝자족과 관련된 강제이주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권과 환경 관련 NGO인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가 2000년에 야더나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던 Unocal사에 대해 인권침해를 범했다는 이유로 당시 파이프라인 공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에 거주했던 미

안마인 12명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Unocal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판례가 있다. Unocal이 강제노동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며 무관함을 강조했지만, 미국 법원은 명백히 예상 가능한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고 수수방관한 기업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ERI 2006).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기업의 국제적 윤리문제로 전환되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¹⁵⁾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반정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수종족 반군 세력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의 공세와 경제개발을 위한 군사정권의 일방적인 계획추진에 따른 강제이주와 노동착취로 인하여 소수종족의 삶은 한층 더 괴로워졌다. 거주지의 전면 해체로 인하여 태국과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의 열악한 환경의 난민캠프에 수용되어 있는 미얀마 난민들은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일부 난민들은 미국, 캐나다 등지로 정치적 망명이 허가되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났지만 그 수는 정말 극히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영국의 식민지배 종식 이후 미얀마의 독립과 함께 시작되었던 종족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시한폭탄처럼 미얀마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신헌법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까친, 까야, 까잉(까렌), 친, 몽, 여카인, 산 족의 자치주 외에 새로 나가(Naga), 다누(Danu), 빠오(Pa-O), 빠라우(Palaung), 꼬깡(Kokang), 와(Wa) 족을 위하여 주의 하부 행정구역인 “묘네”(township)의 차원에서 자치행정구(Self-Administered Zone)를 설치하여 자치적인 행정업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WH 2008). 미얀마 정부가 주장하는 135개¹⁶⁾

15) NGO 활동가들이 미얀마 군부보다는 기업을 타깃으로 삼기 쉽다는 이유에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역투자에서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다(Imle 1999).

의 종족 중에서 향후 이러한 자치행정구의 요구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향후 탄생될 미얀마연방공화국의 행정 장애가 될 소지가 많다. 군부의 장기적인 지배와 대통령보다 권한이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이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2010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소수종족의 문제는 미얀마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V. 맺는 글

천연가스는 지구상의 다른 화석연료와 비교해볼 때, 양적으로 풍부하고, 값도 싸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으며 아황산가스를 내뿜지 않는 청정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1세기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그런 천연가스가 미얀마의 안다만해와 뱅갈만에 향후 30년간 주변 국가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오랜 기간 권위적 지배체제를 유지해왔던 군부가 인권유린과 경제낙후라는 이중의 불명예를 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의 등

16) 흔히 미얀마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미얀마의 소수종족은 모두 135족이라는 설명은 실은 1931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때에 언어별 조사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1931년의 자료에 따르면, 언어별 집단은 13개의 주요 범주로 나누어져 있고 그곳에 모든 방언 집단을 포함시켜 모두 세어보면 135개가 나온다(Bennison 1931: 198-200). 이것을 기준으로 미얀마의 종족 단위로 여기는 것은 언어집단과 종족집단(ethnic group)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미얀마와 같은 상황에서 보면 도무지 의미 없는 개념이다. 미얀마의 종족 구성의 개념에 대해 가장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Leach(1977: 46-61)는 까친족(Kachin)의 경우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소수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천연가스 개발과 생산 및 공급을 갈구하는 주변 국가들의 열성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국제관계에 있어 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던 미얀마 군부의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천연가스가 가져다준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천연가스 공급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인접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무역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미얀마 군부는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인접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상황을 이용하여 국제관계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원 개발과 생산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마치 과거 왕조시대의 힌두교적 정치지배적 유형이었던 만다라의 재현으로도 여길 수 있는 것으로 현대에 있어서 그런 만다라의 유지는 천연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크게 의존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이거나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이 되더라도 미얀마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로드맵 5단계에 들어서면 미국의 정책변화도 기대된다.

둘째, 국제관계의 안정화로 인하여 군부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어 두었던 국내문제의 여러 과제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군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사이클론 나기스의 급습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정국 속에서도 무리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켰고, 그 무엇보다 자원개발과 군사적 충돌의 해소를 위하여 오랜 기간 방치해두었던 국경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소수종족의 강제이주를 실행하는 일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얀마는 독립 이후 최초로 전국을 망라하는 안정된 통치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군부가 권위적인

잘못된 거버넌스로 자원개발과 소수종족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얀마의 독립 초기에서 경험했듯이 종족분쟁은 계속 재발될 것이고 중국에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와 같은 국가 분열의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군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반군부 무장집단들이 여전히 무장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 국경지대의 목재, 보석, 아편 등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에 있어서 중앙과 외연의 대립적 관계는 영국의 식민지배 동안 고착화되었고, 독립 직전 아웅산 장군의 이른바 “뽕롱 회담”(Panglong Conference)¹⁷⁾ 이후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국민통합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결국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종족 분쟁의 종말은 해결책 없는 내전으로 국가가 분열이 되거나 중앙이 군사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철저하게 외연을 억누르는 방법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얀마 군부는 1960년대 이후부터 철저하게 버마족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 외에는 허용한 적이 없다. 현 미얀마의 최상위 행정구역인 7개의 주(state)는 대부분류의 소수종족의 명칭을 붙인 것에 불과하며, 2008년 헌법에 규정된 새로운 6개의 소수종족은 인구수는 적지만 군부와의 평화협정 체결의 대가로 조그마한 자치행정구역을 부여받아 집단생활을 보장받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에 있어서 미얀마의 국가경계 내에서 그나마 다양한 종족 간의 갈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상좌불교의 전통이 거의 모든 곳에 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얀마 천연가스가 지

17) 영국 정부는 미얀마 독립 협상의 주역이었던 아웅산 장군에게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종족과 독립국가의 구조에 관하여 협상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산주의 도시 뽕롱에서 1947년 2월 12일 까친족, 산족, 친족 대표와 아웅산 장군이 연방국가 구조에 합의하였다. 독립 이후 그 날을 기념하여 연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삼고 있다.

니게 될 참모습은 과연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 하는 문제이다. 천연가스의 개발과 생산을 통하여 미얀마 군부가 뜻밖에 얻게 된 이익이 결국 그들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미얀마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군부에게 국내 정치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준 셈이다. 그럼에도 자원개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군부의 일방적인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원의 저주로 치부하며 방치해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연가스로 인하여 재정립되고 있는 이중, 삼중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외부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군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이제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이는 전국민의 반군부 민주화운동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원개발의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주변국가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차라리 미얀마 군부가 예정하고 있는 정치일정 로드맵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독립 이후 내전에 의해 제대로 된 헌정 질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얀마에 법치제도의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편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지도 모르겠다. 그런 역할도 아마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인접한 국가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겠지만, 사실 자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진정으로 군부와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지 의문이다.

주제어: 미얀마, 군사정부, 천연가스, 만다라, 정치경제학, 아세안, 소수종족, 강제이주

〈참고문헌〉

- 대우인터넷내셔널. 2007. 보도자료. <http://www.daewoo.com/index.jsp>
2008/10/12.
- AFP. 2008. "Myanmar Rejects Bangladesh Request for Gas." March 12.
_____. 2009. "US Not to Lift Myanmar Sanctions in Review: Official." April 28.
- Altsean. 2006. "From Russia with Love: More Weapons for the SPDC."
Burma Briefing: Issues and Concerns Vol. 3.
- Andrus, J. R. 1948. *Burmese Economic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ech, Hannah. 2009. "A Closer Look at Burma's Ethnic Minorities." *Time*.
January 30. <http://www.time.com/time/world/article/0,8599,1874981,00.html> 2009/3/5.
- Bennison, J. J. 1933. *Census of India, 1931: Volume XI Burma Part I.-Report*.
Rangoon: Office of the Supdt., Govt. Printing and Stationery.
- Burma Lawyers' Council(BLC). 2008. "Analysis of the SPDC's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Lawka Pala* No. 30.
[http://www.blc-burma.org/PDF/LIOB/LawkaPala%2030%20Eng.p](http://www.blc-burma.org/PDF/LIOB/LawkaPala%2030%20Eng.pdf)
df 2009/1/10.
-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CSO). 해당연도. *Statistical Yearbook*.
Yangon: CSO.
- Cloud, David. 2007. "Bush Imposes New Sanctions on Myanmar." *New York Times* October 20.
- Deng, Shasha. 2009. "Statistics: Myanmar Foreign Investment Rises Sharply
in 2008." *Xinhua News*.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9-03/18/content_11032577.htm 2009/4/25.
- Devare, Sudhir. 2006. *India & Southeast Asia: Towards Security Convergenc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Earth Rights International(ERI). 2006. *Doe V. Unocal Case History*.
http://www.earthrights.org/site_blurbs/doe_v_unocal_case_history.html 2008/5/4.
- Egreteau, Renaud. 2008. "India's Ambitions in Burma." *Asian Survey* 48(6): 936-957.
- EIU. 2007. *Country Profile 2007: Myanmar(Burma)*.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rlanger, Steven. 1997. "Clinton Approves New U.S. Sanctions against Burmese." *New York Times* April 22.
- Fong-Sam, Yolanda. 2007. *The Mineral Industry of Burma*. 2005 Minerals Yearbook: Burma. U.S. Geological Survey,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 Ghai, Yash. n.a. *The 2008 Myanmar Constitution: Analysis and Assessment*. Unpublished Manuscript.
- Hadar, Leon. 1998. "U.S. Sanctions against Burma." *Trade Policy Analysis*.
1. <http://www.cato.org/pubs/trade/tpa-001.html> 2008/5/7.
- Htin Kyaw. 2009. "Foreign Trade Breaks \$11b Barrier before End of Fiscal Year." *The Myanmar Times* 24(46). March 30-April 5.
- Human Rights Watch. 2007. *Burma: Gem Trade Bolsters Military Regime, Fuels Atrocities*. Human Rights News.
- Humphries, Conor. 2007. "Russia to Build Nuclear Centre in Sanctions-Hit Burma." *The Shwe Gas Bulletin* 2(10): 7.
- Imle, John F. 1999. "Multinationals and the New World of Energy Development: A Corporat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1): 263-280.
- Internal Displacement Profile(IDP). 2009. *Myanmar: No End in Sight for Internal Displacement Crisis*. Geneva: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rrawaddy. 2007. "Burma's Nuclear Ambition." *The Irrawaddy* 15(6).
http://irrawaddy.org/article.php?art_id=7330 2008/5/17.

Khin Maung Win, U. 2004. *Myanmar Roadmap to Democracy: The Way Forward*. A Paper read on the Seminar on Understanding Myanmar, Myanmar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ICT Park, Yangon on January 27-28, 2004.

Leach, E. R. 1977.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London: The Athlone Press.

Levesque, Julien. 2008. "Lords of Jade: Mismanaging Myanmar's Natural Resources." *IPCS Issue Brief* No. 60, March 2008.

McDonald, Mark. 2009. "Senior U.S. Diplomat Makes a Trip to Myanmar." *The New York Times* March 26. http://www.nytimes.com/2009/03/26/world/asia/26burma.html?_r=1&scp=1&sq=hillary%20burma%20trip&st=cse 2009/3/27.

Myanmar Times. 2008. *Gem Sales Earn Myanmar \$191 million*. March 30-April 5. 24(464).

Nance, S. L. 2006. "Unplugging Thailand, Myanmar Energy Deals." *Asia Times*. November 14.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HK14Ae02.html 2009/1/14.

The New Light of Myanmar. [영자 미얀마 국영신문]

Pyankyayay-Wungyi-Htana(PWH). 2008. Pyidaungzu-Thamada-Myanma-Naingandaw Hpweziboun-Ahcegang-Ubaday (2008 hkuhnt). [미얀마어,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 2008년] Pounhneikye-Hnin-Saouk-Htouwwayay-Loukngang.

Ramachandran, Sudha. 2006. "Myanmar on Laughing Gas." *Asia Times* May 18. http://www.atimes.com/atimes/South_Asia/HE18Df01.html.

2008/12/5.

- Shee, Poon Kim. 2002.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Myanmar Relations: Strategic and Economic Dimensions." *Ritsumeikan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 33-53.
- Shwe Gas Movement(SGM). 2007a. "Year 2007: MPRL and China Heighten Burma's Energy Sector." *The Shwe Gas Bulletin* 2(7): 8.
- _____. 2007b. "Thailand's PTTEP Has Discovered Gas in Burma." *The Shwe Gas Bulletin* 2(7): 8.
- _____. 2008. "Burma's FDI More Than Doubled: Thailand Is the Largest Investor." *The Shwe Gas Bulletin* 3(2): 6.
- _____. 2009. *The Shwe Project*. <http://metallica.nidelven-it.no:36080/shwe/about-shwe> 2009/3/10.
- South, Ashley. 2007. *Burma: The Changing Nature of Displacement Crises*. RSC Working Paper No. 39. Oxford: Refugee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Oxford.
- Tambiah, S. J. 1976. *World Conqueror & World Renounc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R. H. 2009. *The State in Myanmar*. London: Hurst & Company.
- Thailand Burma Border Consortium(TBBC). 2007a. *Programme Report: July to December 2007*. Bangkok: Thailand and Burma Border Consortium.
- _____. 2007b. *Internal Displacement in Eastern Burma: 2007 Survey*. Bangkok: Thailand and Burma Border Consortium.
- Total. 2008. *Total in Myanmar: A Sustained Commitment*. Unpublished Booklet.
- Turnell, Sean. 2008. "Burma's Insatiable State." *Asian Survey* 48(6): 958-976.
- Wechsler, Maxmilian. 2004. "The Downfall of Gen. Khin Nyunt." *Bangkok*

- Post* October 31. <http://www.rebound88.net/sp/junta/skhinnyunt-oust19.html>. 2008/12/1.
- Wellner, Pamela. 1994. "A Pipeline Killing Field: Exploitation of Burma's Natural Gas." *The Ecologist* 24(5): 189-193.
- Wechsler, Maxmillian. 2004. "The Downfall of Gen Khin Nyunt." *Bangkok Post* October 31. <http://www.rebound88.net/sp/junta/skhinnyunt-oust19.html> 2008/11/20.
- Ye Lwin and Kyaw Thu. 2007. "Govt Dominates Foreign Trade as Gas Sales Pump up Exports." *The Myanmar Times* June 4-10. 19(369).
- Ye Lwin and Win Nyunt Lwin. 2007. "Trade Tipped to Hit \$8 Billion This Year." *The Myanmar Times* May 21-27. 19(367).
- 工藤年博(Kudou, Toshihiro) 編. 2008. 『ミャンマ-經濟の實像』 千葉アジア經濟研究所.

(2009. 5. 7 투고; 2009. 5. 18 심사; 2009. 5. 28 게재확정)

<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Natural Gas in Myanmar

Jang Sik Park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recent situation under the dearth of fossil-fuels on the global scale has provided the opportunities to stabilize the turbulent international relations of Myanmar for its military regime, having the surrounding nations against it for its harsh and authoritarian rule. The natural gas having been produced since 2000 in Myanmar is emerging not merely as a product of treasure to fill up the destitute finance, but also as a political reliefer to help the military leaders being placed in predicaments.

In the latter perspective, the paper examines the real facet of the natural resource serving as a tool seeming like multipurpose key to the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in contemporary Myanmar. First of all, the military regime has been greatly helped to reconstruc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y the accumulative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ing trade from the neighboring nations, Thailand, China, and India, which are supplied with the natural gas. The junta benefits enormously from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is paper a model of mandala is proposed to show the complicate relations between Myanmar and peripheral nations.

As a result, stimulated by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natural gas,

the confident regime has seized the frontier areas, specifically eastern parts along the Thai border, where various ethnic minorities have lived up to their traditional ways of life. As a matter of fact, the internal displacement in the areas has been occurring in favor of constructing power plants or connecting gas pipelines ever since 2000, resulting in over 200,000 refugees crossing over to Thailand. The military regime might regard it as a sort of pacification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independenc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ethnic conflict may repeatedly happen in reflecting the modern history of Myanmar as the current military leaders pursue its own purpose of authoritarian rule.

In these respects, whether the natural gas is beneficial or harmful to the future of Myanmar,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regime at a first glance seems to be dependent on the attitudes and roles of neighboring countries under no other solutions. As they do not seem to play their own role for Myanmar's political improve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schedule of the road-map for democracy should be rather encouraged and promoted to proceed on right time so that the constitutional rule, notwithstanding its absurd, irrational contexts, be readily established to start the civil, though ostensible, government by election to be held.

Key-Words: Myanmar, Military Regime, Natural Gas, Mandala, Political Economy, ASEAN, Ethnic Minority, Internal Displacement